



6월 9월 출제된 작품과 아주 긴 작품을 제외한  
2023학년도 EBS 고전시가 전 작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

본 교재는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로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 수능특강&수능완성

국어영역 고전시가



본 교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자야오노스가 편집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 또는 분석서로 학습한 후 활용하시면 더 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부 수능특강 고전시가

- 01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작자 미상)
- 02 바람도 쉬어 넘는~(작자 미상)
- 03 찬기파랑가(충담사)
- 04 제망매가(월명사)
- 05 서경별곡(작자 미상)
- 06 월곡답가(정훈)
- 07 짚방석 내지 마라~(한호)
- 08 청초 우거진 곳에~(임제)
- 09 곡구룡 우는~(오경화)
- 10 사랑이 거짓말이~(김상용)
- 11 임이 헤오시매~(송시열)
- 12 남은 다 자는 밤에~(송이)
- 13 어이 못 오더냐~(작자 미상)
- 14 누항사(박인로)
- 15 유산가(작자 미상)
- 16 본조 아리랑(작자 미상)
- 17 신고산 타령(작자 미상)
- 18 습수요(이달)
- 19 산민(김창협)
- 20 나무도 바이 돌도~(작자 미상)
- 21 강호사시가(맹사성)
- 22 상춘곡(정극인)
- 23 산은 적적 월황혼에~(작자 미상)
- 24 고공가(허전)
- 25 용사음(최현)
- 26 도산십이곡(이황)
- 27 정과정(정서)
- 28 개야미 불개야미~(작자 미상)

## 2부 수능완성 고전시가

- 29 꿈에 다니는 길이(이명한)
- 30 벽사장이 어른어른커늘~(작자 미상)
- 31 님이 오마 하거늘~(작자 미상)
- 32 금루사(민우룡)
- 33 저곡전가팔곡(이취일)
- 34 오우가(윤선도)
- 35 정읍사(어느 행상인의 아내)
- 36 가시리(작자 미상)
- 37 배소만처상(김정희)
- 38 봉선화가(작자 미상)
- 39 잠노래(작자 미상)
- 40 사제곡(박인로)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톨찌귀 수톨찌귀 배  
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제면 여단아 불까 하노라  
- 작자 미상 -

(나)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 쉬어 넘는 고봉(高峰) 장성령  
고개  
그 너머 임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  
리라  
- 작자 미상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내 자갈 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충담사, 「찬기파랑가」 -

(나)

생사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룬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님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닭은 곳 아즐가 닭은 곳 소경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이별할 바엔 아즐가 이별할 바엔 길쌈베 버리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괴시란대 아즐가 괴시란대 울면서 좇겠나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끈이야 아즐가 끈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천 년을 아즐가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신(信)이야 아즐가 신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배 내어 아즐가 배 내어 놓느냐 사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네 각시 아즐가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가는 배에 아즐가 가는 배에 었었느냐 사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배 타 들면 아즐가 배 타 들면 꺾으리이다 나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랑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 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 같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 사람을 그리는가  
지금도 옛 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제1수>

내 얼굴 하도 험하니 비누 단장 아니 하네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니거든  
엿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제2수>

거기서 유신(有信)하면 나 혼자 무신(無信)할까  
백년(百年) 전(前)의란 둘이 다 민사이다  
세상운우(世上雲雨) 인정(人情)이야 배울 줄 있으라

<제3수>

청송(靑松)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白雲)으로 장(帳)  
두르고

초옥(草屋) 삼간(三間)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홍중에 진념(塵念)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제4수>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요 구름 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제5수>

달이 밝은 때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時節)이 좋은 때는 경(京)을 보고 그리노라  
사람이 덜 사랑한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제6수>

피는 첩첩(疊疊)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故人)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제7수>

여기서 그리는 뜻을 저기서 아니 모르는가  
무던히 고운 님 덧없이 여의올 듯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제8수>

상산(商山)의 채지(採芝)하러 부디 넷이 갈 것인가  
따라올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웁시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 듣도 보도 마웁시다

<제9수>

방장산(方丈山) 기슭에서 신선(神仙)님네 만나신가  
얼핏 보시거든 내 말씀 전(傳)하소서  
산중(山中)에 타시는 청학(靑鶴)을 나도 탄들 어떠하리

<제10수>

- 정훈, 「월곡답가」 -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앉으라  
술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 온다  
아이야 박주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한호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임제 -

(다)

곡구룡(谷口淸)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아들 글 읽고 며늘아기 베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마초아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 오경화 -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랑이 거짓말이 임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뵈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보리오

- 김상용 -

(나)

임이 헤오시매 나는 전혀 믿었더니  
날 사랑하던 정(情)을 누구에게 옮기신고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설우라

- 송시열 -

(다)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앉아  
전전불매(輾轉不寐)하고 임 둔 임을 생각는고  
차라리 내 먼저 식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 송이 -

(라)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새에 용거북 자물  
쇠로 깊이깊이 잠갔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달이 서른 날이어니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라

- 작자 미상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리고 우활(迂闊)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빨감 삼아  
 닷 흙 밥 서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사  
 얼마 만에 받은 밤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벌여 줄 밀듯 나아오니  
 인정천리(人情天理)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덜 데운 숯농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옮길런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옹게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하다  
 가을이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甁)에는 담겼으랴  
 다만 하나 빈 독 위에 어른 털 돋은 늙은 쥐는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의 강도(強盜)로다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석서삼장(碩鼠三章)을 시시(時時)로 음영(吟詠)하며  
 탄식(歎息) 무언(無言)하며 머리 굽을 뿐이로다  
 이 중(中)에 탐욕스런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에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분의 망신(奮義忘身)하야 죽어야 말너 너겨  
 우탁 우랑(于橐于囊)의 줍줍이 모아 너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하야 몇 백전(百戰)을 지내연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랴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젓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놀다려 몰랄난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瓏上耕翁)을  
 천(賤)타 할 이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들 어느 쇼로 갈로손고  
 한기태심(旱既太甚)하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눅흔 논애 잠간 갠 널비에  
 도상 무원수(道上無源水)를 반만큼 대혀 두고  
 쇼 한 적 주마 하고 엄섬이 하난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하온 후(後)에  
 어와 그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내웁노라  
 초경(初更)도 거윈데 그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하기 구차(苟且)한 줄 알건마는  
 쇼 업산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하니나 갑시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 치(雉)를 옥지읍(玉脂泣)게 구어 내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하거든  
 이러한 은혜(恩惠)를 어이 아니 감홀넌고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하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설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개 즈칠 뿐이로다  
 - 박인로, 「누항사」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북창(北窓)을 비껴 안자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내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 주창하며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린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소뵈는 벗보님도 뉘홀세고  
 가지 영권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러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 지 오래러니  
 먹고살 걱정으로 어지버 잊었도다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대 하나 빌려사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가라 하라  
 다툼 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이제야 소 빌리기 맹세(盟誓)코 다시 말자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렇 발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  
 내 빈천(貧賤) 슬히 여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이 여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삼겼으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 년(百年) 살라  
 원헌(原憲)이는 몇 날 살고 석숭(石崇)이는 몇 해 산고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온 뜻은 없노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할 이 뉘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산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  
 (琪花瑤草) 난만(爛漫)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유상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접무(花間  
 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三春佳節)이 좋을시고 도화만발점점홍(桃花滿發  
 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에삼춘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한데 황산곡리당춘절(黃山  
 谷裏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지어  
 충천(冲天)에 높이 떠 두 날개 훨썬 펼 펼  
 백운간(白雲間)에 높이 떠 천리강산 떠나면 길에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 첩첩 태산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응어리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쭈랄 활활 춤을 춘다  
 층암절벽 상에 폭포수는 쿵쿵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살살  
 열의 열 골 물이 한데로 합수(合水)하여  
 천방져 지방져 소쿠라지고 평퍼져  
 년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쿵쿵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奏穀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  
 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낙조가 눈앞에 벌였으니 경개무궁(景概無窮)이 좋을  
 시고

- 작자 미상, 「유산가」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연>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아들여 총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2연>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3연>

문전의 옥도는 어찌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4연>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5연>

말깨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일깨나 하는 놈 공동산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6연>

아깨나 낱을 년 갈보질하고  
목도깨나 메는 놈 부역을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7연>

신작로 가상다리 아까시 남은  
자동차 바람에 춤을 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8연>

먼동이 트네 먼동이 트네  
미친 님 꿈에서 깨어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9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0연>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강산에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1연>

- 작자 미상, 「본조 아리랑」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고산 우루루루 함흥 차 가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붓짐만 썬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디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연>

어린아해 밥 달라고 발버둥질 치는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디여라 연사연이로구나  
 <3연>

정든 님을 다리고 산나물을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 차를 탈까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디여라 연사연이로구나  
 <5연>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내 몸  
 언제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할까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디여라 연사연이로구나  
 <9연>

상개굴 큰애기 님 오기만 기다리고  
 푸룻푸룻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디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0연>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곳없구요  
 무심한 기차 툇 떠나자 우리 님 간곳없구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디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1연>

부령 청진 가신 님 돈 벌면 오고  
 공동묘지 가신 님 언제나 오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려림마 디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2연>

- 작자 미상, 「신고산 타령」 -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온종일 이리저리 주워야 소쿠리도 안 차요  
 올해는 벼 베는 이 숨씨 하도 좋아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 이달, 「습수요」 -

(나)

밭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물을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게요  
 좋기야 하겠지요 저 너머 평지  
 가려 해도 고을 관리 겁이 난다오

- 김창협, 「산민」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 산에 매에 쫓긴 까투리의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용총도 끊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잿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저물어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임 여원 내 안이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오  
- 작자 미상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濁醪) 계변(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춘사>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하사>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흘러 띄워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추사>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 넘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纒繹)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동사>

- 맹사성, 「강호사시가」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生涯) 어떠하고  
 옛사람 풍류(風流)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에 다들쏘냐  
 시비(柴扉)에 걸어 보고 정자(亭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한데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일랑 오늘 하고 욱기(浴沂)일랑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갓 꺾어 익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數) 놓고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준중(樽中)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뢰어라  
 소동(小童) 아해더러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明沙)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산이 거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잡아 들고  
 봉두(峰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벌여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펴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샤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무튼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 정극인, 「상춘곡」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은 적적 월황혼(月黃昏)에 두견 울어도 임 생각이요 밤  
은 침침 야삼경(夜三更)에 접동이 울어도 임 생각이라

침상편시춘몽중하여 베개 위에 빌은 잠은 계명축시(鷄鳴  
丑時)에 놀라 깨니 임의 흔적은 간곳없고 다만 등불만이로  
다. 그러매로 식불감미(食不甘味)하여 밥 못 먹고 침불안석  
(寢不安席)하여 잠 못 자며 장장지야(長長之夜)를 허송하게  
보내며 독대(獨對) 등촉(燈燭)으로 벗을 삼으니 누 탓을 삼  
으랴. 설분(雪憤)을 하잔 말가

주야장천(晝夜長天)에 믿을 곳 없어서 못 살것구나

- 작자 미상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옷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제 새끼 꼬며 이르리라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려 할 제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경작하니  
 울며 눈 텃밭이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해야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雇工)도 근검(勤儉)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雇工)들은 생각 어이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에 흘깃흘깃 하는 건가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서  
 가뜩에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사(世祀)를 어찌하여 치르려뇨  
 김가(金哥) 이가(李哥) 고공(雇工)들아 새 마음 먹으스라  
 너희네 젊었느냐 생각 설마 아니하냐  
 한술에 밥 먹으며 매양의 시기하라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지으스라  
 한집이 가멸면 옷밥을 걱정하라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 삶아 벼 세워 던져 두고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매어스라  
 산전(山田)도 거칠었고 무논도 우거졌다  
 짜리 피가 말뚝처럼 벼 곁에 세울세라  
 칠석(七夕)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뉘 잘하며 섬일랑 뉘 엮으라  
 너희 재주 헤아려 서로서로 말으스라  
 가을 거둔 후면 성조(成造)를 아니하라  
 집일랑 내 지을게 움일랑 네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斟酌)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分別)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던들 좋은 해 구름 끼어 별뉘를 언제 보라  
 방아를 못 쪼개든 거칠고도 거친 울벼  
 옥 같은 백미(白米)될 줄 뉘 알아보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관대  
 화살을 제쳐 놓고 옷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주리는가  
 죽조반(粥早飯) 아침저녁 더 해서 먹었는데  
 은혜일랑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깊은 새 머슴 어느 때 얻어 있어

집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으려뇨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구나

- 허전, 「고공가」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탓인가 뉘 탓인가, 천명(天命)인가 시운(時運)인가  
 잠깐 사이에 어찌 된 줄 나 몰라라  
 전쟁 많은 세상에 흥망도 덧없고  
 남북의 오랑캐도 예부터 있지마는  
 참혹과 상심이 이토록 컸던가  
 변방에 성 쌓으니 오랑캐 범접 못하고  
 치욕 씻고 악(惡) 없애니 천하가 한 식구더니  
 황제의 힘 약해져 오랑캐가 강성하여  
 유충의 말발에 간과 뇌가 짓밟히고,  
 석륵의 호령에 흠먼지 가득하니  
 송제양진에 남북을 뉘 나눴는가  
 머나먼 아미산에 행차도 급박하구나  
 전당의 겨울달이 옛 빛이 아니구나  
 중국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떠하라  
 조그만 우리나라 몇 번이나 바뀌어  
 역대 국가들이 언제 지났느냐  
 나 태어날 무렵엔 전란을 몰랐더니  
 그사이에 변화하여 이 난리 만났느냐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어제 본 듯하건마는  
 예악과 현송(絃誦)은 찾을 데 전혀 없다  
 보후와 신백은 산악(山岳)도 아끼더니  
 섬나라 오랑캐는 그 누가 낳았는가  
 호랑이와 큰 고래 산해(山海)를 흔들거늘  
 동서남북(東西南北)에 못 싸움 일어나니  
 밀치며 제치며 말도 많고 일도 많네  
 이 좋은 수령(守令)들 물어뜯나니 백성(百姓)이요  
 톱 좋은 변방 장수 후벼 파나니 군사(軍士)로다  
 재화(財貨)로 성(城)을 쌓으니 만장(萬丈)을 뉘 넘으며  
 고혈(膏血)로 해자 파니 천 척(千尺)을 뉘 건너랴  
 호화로운 잔치에 추월춘풍 쉬이 간다  
 해도 길건마는 밤놀이는 그 어떨꼬  
 주인(主人) 잠든 집에 문(門)은 어이 열었느냐  
 도적(盜賊)이 엿보거든 개는 어이 안 짖는고  
 대양(大洋)을 바라보니 바다가 여위었다  
 술이 깨더냐 병기(兵器)를 뉘 가지리오  
 감사(監司) 병사(兵使) 목부사 만호첨사(萬戶僉使)  
 산림(山林)이 비었던가 수이곰 들어갈사  
 어리석을사 김수(金睟)야 빈 성을 뉘 지키랴  
 우스울사 신립(申砮)야 배수진(背水陣)은 무슨 일고  
 양령(兩嶺)을 높다 하랴 한강(漢江)을 깊다 하랴  
 대책이 어설프니 하늘인들 어찌하리  
 하고한 백관(百官)도 숫자 채울 뿐이렸다  
 일석(一夕)에 달아나니 이 시름 뉘 맡을까  
 삼경(三京)이 복몰(覆沒)하고 열군(列郡)이 와해하니  
 고을 도처에 누릴샤 비릴샤  
 관서(關西)를 돌아보니 압록강(鴨綠江)이 어드메요  
 일월(日月)이 무광(無光)하니 갈 길을 모를노다  
 삼백이십 주(三百二十州)에 대장부 하나 없듯던가

스스로 무릎 꿇어 개돼지의 신하 되니  
 황금 띠 둘러매던 옛 재상(宰相) 아니런다

- 최현, 「용사음」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남의 사나이 정인홍 김면뿐인가  
 홍의장군 광재우 담력도 장하구나  
 백의종군(白衣從軍) 삼도의 의병들이  
 전력이 약하여 할 일이 없건마는  
 군사를 일으켜 복수함에 성패를 논하라  
 초유사의 충성심을 아는가 모르는가  
 노련 격서에 뉘 아니 눈물 나리  
 쫓겨가는 저 사람들아, 권옹수 웃지 마라  
 영천(永川)의 왜적 아니 치면 더욱이 할 일 없다  
 먼 곳의 전공(戰功)은 들을수록 귀에 차고  
 가까운 왜적 상황은 볼수록 눈에 찬다  
 뒤에서 방관하다 남의 공을 가로채니  
 애를 쓰고 고생해도 보람이 전혀 없다  
 송상현, 김제갑, 고경명, 조현, 정담  
 세찬 바람 아니 불면 억센 풀을 뉘 알던가  
 복숭아꽃 붉고 오얏꽃 흰 땀 버들조차 푸르더니  
 한 줄기 가을바람에 낙엽 소리뿐이로다  
 김해, 정의번, 유종개, 장사진아,  
 죽는 이 많으니 이 죽음 한탄 마라  
 경주(慶州)가 무너지니 진주성(晉州城)을 뉘 지키라  
 군역하는 장정들이 갑자기 어디 갔는가  
 개구리밥과 맑은 물을 재물로 삼아  
 의로운 넋을 어디서 부르려는가  
 조상의 영토에 도적이 임자 되어  
 산마다 죽이고 골마나 상처 내니  
 원통한 피 흘러내려 평지가 강이 되어  
 천지도 분간 못해 피할 데 전혀 없다  
 성인(聖人)을 능욕하니 왕릉이라 보존하며  
 아이를 죽이니 늙은이라 살았으랴  
 복선화음을 그 누가 옳다더냐  
 얼마나 어리석어야 이 하늘 믿겠는가  
 두어라, 어찌하라 부모님 꾸중하라  
 명나라 황제 진노하여 군대를 일으키니  
 정예병사들 소리만 들었는데  
 어와, 우리 장수들, 몇 달 만에 나왔는가  
 삼경(三京)을 청소하니 중흥이 가깝도다  
 도망가는 왜적을 섬멸하지 못하는가  
 화근을 길러 후환을 남기면 또 어찌하려는가  
 이제독의 용맹한 군사 그 누가 대적하며  
 유장군의 용기와 계략 무슨 일 못 이룰까  
 곧 끝날 것 같더니만 세월도 더디구나  
 하늘이 돕지 않는가, 시기가 멀었는가  
 다시금 생각하니 인사(人事) 아니 그르던가  
 국가의 흥망이 장수와 재상에 달렸으니  
 지난 일 후회 말고 이제나 옳게 하소  
 끝나지 않은 전란으로 살기(殺氣)가 하늘에 닿아  
 겨우 남은 사람 돌림병에 다 죽겠구나  
 방어는 누가 하며 받은 누가 갈려는가

부자도 이별하니 형제를 돌아보라  
 형제를 버리는데 처자식을 보호하라  
 온 들판 쭉밭 되니 어드메가 내 고향(故鄉)인고  
 백골이 산 이루니 어느 것이 내 골육(骨肉)인고  
 옛날의 번화(繁華)를 꿈같이 생각하니  
 산천(山川)은 옛 낮이요 인물(人物)은 아니로다  
 주인(周人) 서리가(黍離歌)로 청사(靑史)에 눈물 나고  
 두릉(杜陵) 애강두(哀江頭)를 오늘 다시 불러 보니  
 풍운(風雲)이 애처롭고 초목(草木)이 슬피한다  
 남아(男兒) 삼긴 뜻이 이렇기야 하라마는  
 좀스런 무반(武班) 썩은 선비 한 냥도 채 못 된다  
 청총마(靑驄馬) 적토마(赤兔馬) 울면서 구르거늘  
 막야검(莫耶劍) 용천검(龍泉劍) 흰 무지개 절로 선다  
 언제야 은하수 헤쳐 이 병진(兵塵)을 씻으려노

- 최현, 「용사음」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으슴하랴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었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말이  
천하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속여 말שמ할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듣기 도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기 도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잊지 못하야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어떻다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마음 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  
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이슬고

<제6수>

천운대(天雲臺) 돌아들어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한데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무궁(無窮)하애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어 으슴할고

<제7수>

뇌정(雷霆)이 파산(破山)하여도 농자(聾者)는 못 듣나니  
백일(白日)이 중천(中天)하여도 고자(瞽者)는 못 보나니  
우리는 이목충명남자(耳目聰明男子)로 농고(聾瞽) 같지  
마로리

<제8수>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네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쩔고

<제9수>

당시(當時)에 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온고  
이제나 돌아오나니 딴 데 마음 마로리

<제10수>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어찌하여 주야(晝夜)에 그치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제11수>

우부(愚夫)도 알며 하거니 그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다 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라라

<제12수>

- 이황, 「도산십이곡」 -

\* 어약연비: 고기가 물에서 뛰놀고 솔개가 하늘을 낚.

\* 운영천광: 구름이 그림자를 남기고 햇빛이 밝게 비치는 모습.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님플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지라도 님은 훈디 녀저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몰히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

- 정서, 「정과정」 -

(나)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부러진 불개야미  
 앞발에 정종(疔腫)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야미 광릉(廣陵)  
 샘재 넘어 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몰어 추켜들고 북해  
 (北海)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임아 임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

- 작자 미상 -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꿈의 단니는 길이 즈최곳 나랑이면  
 님의 집 창(窓)받기 석로(石路) | 라도 무디리라  
 꿈길히 즈최 업스니 글을 슬허 흐노라

- 작자 미상 -

(나)

벽사창(碧紗窓)이 어른어른커늘 님만 너겨 나가 보니  
 님은 아니 오고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흔디 벽오동(碧梧桐)  
 저즌 님헤 봉황(鳳凰)이 느려와 짓 다듬는 그림재로다  
 모쳐라 밤일식 만정 늠 우일 번 흐패라

- 작자 미상 -

(다)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회 치드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흐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산(山)  
 브라보니 거머헛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님의 님비곰의 천방지방 지방천  
 방 즈 디 므른 디 곶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셔 정(情)옛  
 말 흐려 흐고 젓눈을 흘긔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열사  
 혼날 곶가 벽진 주추리 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만정 형여 낮이런들 늠 우일 번 흐패라

- 작자 미상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와 저 낭자(娘子) | 야 내 말씀 드리보소  
 연화(烟化)에 못쳐신들 숙연(宿緣)\*이야 이즐소나  
 낙포선녀(洛浦仙女)\* 보라하면 전생(前生)에 네 아닌다  
 南關(남관) 布衣(포의)도 백면생(白面生)인 이 몸도 선객  
 (仙客)인줄 뉘 알니오  
 반도(蟠桃)\* 춘색(春色) 요지연(瑤池宴)\*에 반도(蟠桃)를  
 도적흔 이 네언마는  
 여수(與受)\*를 동죄(同罪)\*하니 너와 나와 적하(謫下)\*로다  
 창망(蒼茫)흔 구점연(九點烟)\*에 삼상(參商)\*이 난호이니  
 벽해수(碧海水) 양양(洋洋)\*하야 일대(一帶) 은하(銀河) 되어  
 있다  
 너도 나를 보라 하면 팔잡(八峯)\*이 첩첩(疊疊)하고  
 나도 너를 보라 하면 삼산(三山)이 묘묘(杳杳)하다\*  
 평생(平生)에 한(恨)이 되고 오매(寤寐)에 원(願)하더니  
 옥황(玉皇)이 감동(感動)흔지 선관(仙官)이 두호(斗護)\*흔지  
 태을(太乙)\*의 연엽선(蓮葉船)에 풍범(風帆)을 넘히 달아  
 육오수(六鰲鬚)에 비를 띠고 영주산(瀛洲山)에 드러오니  
 선구물색(仙區物色)\*은 기수(琪樹)와 요화(瑤花)로다  
 풍경(風景)도 도커니와 호인연(好因緣)이 더욱 도타  
 부용안(芙蓉顏) 유엽미(柳葉眉)\*는 전생(前生)과 혼 빗치오  
 연운빈(緣雲鬢) 옥설기(玉雪肌)\*는 진태(塵態)\*가 전혀 업다  
 정원루(定遠樓) 붉은 들에 월모사(月姥絲)\*를 자아내야  
 앵제연어(鸚啼燕語) 화류절(花柳節)\*에 초대운우(楚臺雲雨)\*  
 다정(多情)하니  
 인간(人間)에 사월(四月) 팔일(八日) 천상(天上)에 칠일(七  
 日)이다  
 사랑도 그지업고 태도(態度)도 가즐시고  
 창조(娼條) 야엽(冶葉)은 왕랑(王郎)의 옥단(玉檀)\*인듯  
 무수(舞袖) 섬요(纖腰)는 소유(小游)의 경홍(驚鴻)\*인듯  
 청양(淸楊)은 진진(眞眞)\*이오 단순(丹脣)은 빙빙(娉娉)\*이라  
 깃흔 사랑 고은 태도(態度) 비(比)할 디 전혀 업다  
 녹수(綠水) 춘파(春波) 깃흔 곳에 노는 원앙(鴛鴦) 썩 잇는 듯  
 홍과경예(紅葩瓊藥) 작작(灼灼)되 나는 호접(胡蝶) 머무는 듯  
 부용장(芙蓉帳) 들리후고 합환몽(合歡夢)\*을 일울 적의  
 나삼(羅衫)을 후려잡고 세어(細語)\*로 혼온 말씀  
 청산(靑山)이 불로(不老)하고 녹수(綠水) | 장존(長存)이라  
 전생(前生) 차생(此生) 굿은 연분 백년(百年)으로 괴약하고  
 후생(後生)에 갈지라도 썩나지 마오리라  
 너는 주거 농옥(弄玉)이오 나는 주거 자진(子晉)이라  
 남기되면 연리지(連理枝)\*오 고기되면 비목어(比目魚)\*라

- 민우룡, 「금루사」 -

- \* 숙연: 지난 인연.
- \* 낙포선녀: 복희씨(伏羲氏)의 딸 복비(宓妃). 낙수에 익사하여 낙수의 신이 되었다고 함.
- \* 반도: 요지에서 3천 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는 복숭아.
- \* 요지연: 요지에서 열리는 큰 잔치.
- \* 여수: 주고받음.
- \* 동죄: 죄가 같음.
- \* 적하: 귀양으로 내려옴. 여기서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귀양을

- 왔음을 의미함.
- \* 창망한 구점연: 아득한 중화 땅도 아홉 가닥 연기 같다.
- \* 삼상: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
- \* 양양: 바다가 한이 없이 넓음.
- \* 팔잡: 여덟 봉우리.
- \* 묘묘하다: 아득하다.
- \* 두호: 남을 두둔(斗頓)하여 보호(保護)함.
- \* 태을: 하늘에 있는 진선(眞仙).
- \* 선구물색: 아름다운 경치.
- \* 부용안 유엽미: 얼굴은 연꽃 같고 눈썹은 버들잎 같음.
- \* 연운빈 옥설기: 귀밑머리 구름 같고 살갗은 흰 눈임.
- \* 진태: 세속의 모습.
- \* 월모사: 달 속의 신선인 월하노인이 남녀 간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끈.
- \* 앵제연어 화류절: 앵무새 울고 제비 노래하는 꽃피는 시절.
- \* 초대운우: 초나라의 양왕이 무산선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는 고사를 인용.
- \* 옥단: 왕랑과 기생 옥단의 사랑을 다룬 조선 시대의 한문 소설인 「왕경룡전(王慶龍傳)」의 주인공.
- \* 경홍: 「구운몽」의 기생 적경홍.
- \* 진진: 기생의 이름으로 추정됨.
- \* 빙빙: 기생의 이름으로 추정됨.
- \* 합환몽: 달콤한 꿈.
- \* 세어: 속삭임.
- \* 연리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
- \* 비목어: 눈이 한쪽밖에 없어 두 마리가 떨어지지 않고 늘 같이 붙어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상상 속의 물고기.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맹해서(山盟海誓)\* 깃히 흐고 천정가연(天定佳緣)\* 밋엇더니  
 신정(新情)이 미흡(未洽)하야 중도개로(中道改路)\* 무슴일고  
 산계야목(山鷄野鶩)\* 본성성(本情性)이 노류장화(路柳牆花)\*  
 도로 되니

방맹(芳盟)도 부운(浮雲)이오\* 사랑도 춘몽(春夢)이라  
 성중(城中) 일보지(一步地)에 삼천 약수(三千弱水) 망망  
 (茫茫)하니

청산미(靑山眉)는 세류요(細柳腰)는\* 뉘게 뉘게 헌태(獻態)  
 하여\*

금보요(金步搖) 벽전환(碧甸環)\*은 어디어디 노니는고  
 청조(靑鳥)\*는 아니 오고 두견(杜鵑)이 슬피 울 제  
 여관(旅館) 한등(寒燈) 적막(寂寞)하니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이 불을 뉘 쓰리오 님 아니면 홀 썰 업고  
 이 병을 뉘 곳치리 님이라야 편작(扁鵲)\*이라  
 밋친 마음 외사랑은 나는 점점 김진마는  
 무심(無心)홀슨 이 님이야 허랑(虛浪)코도 박정(薄情)하다  
 삼경(三更)에 못 든 잠을 사경(四更)에 게오 드러  
 접마(蝶馬)\*를 놓히 달너 넷 길홀 츠자 가니  
 월태화용(月態花容)을 반가이 만나 보고  
 천수만한(千愁萬恨)을 역력(歷歷)히 흐렷더니  
 창전(窓前) 벽오(碧梧) 소우성(疎雨聲)\*에 삼혼(三魂)이 훗  
 터지니

낙월(落月)이 창창(蒼蒼)하니 삼오(三五) 소성(小星)뿐이로다  
 어와 내 일이야 진실로 가소(可笑)로다

너도 심각하면 뉘웃침이 이시리라

황옥경(黃玉京)\*에 올라가서 상제(上帝)의 복명(復命)\*호 켜  
 이 말슴 다 알외면 네 죄가 중하니라

다시곰 심각하야 회심(回心)을 두온 후에

삼생(三生) 숙연(宿緣)\*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 민우룡, 「금루사」 -

\* 산맹해서: 산과 바다에 맹세.

\* 천정가연: 하늘이 정한 아름다운 인연.

\* 중도개로: 일을 진행하는 중간에 방침을 바꿈.

\* 산계야목: 성미가 사납고 제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 다잡을 수 없는 사람.

\* 노류장화: 기생.

\* 방맹도 부운이오: 아름다웠던 우리 맹세 뜰구름이 되었구나.

\* 청산미는 세류요는: 청산 같은 눈썹과 버들 같은 허리.

\* 헌태하여: 교태를 보여주며.

\* 금보요 벽전환: 금으로 만든 머리 장식과 옥으로 만든 가락지.  
 임금을 상징함.

\* 청조: 반가운 사자(使者)나 편지를 이르는 말.

\* 편작: 중국 전국 시대의 유명한 의사.

\* 접마: '나비 말'이란 뜻으로, 꿈속에서 나비를 말로 삼아 타고 감  
 을 말함.

\* 소우성: 성긴 비 오는 소리.

\* 황옥경: 하늘 위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

\* 복명: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 삼생 숙연: 전생(前生), 현생(現生), 내생(來生)에 걸친 오래된  
 인연.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상(世上)의 브린 몸이 견무(畎畝)의 늘거 가니  
 밧겻 일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스 일고  
 이 중(中)의 우국(憂國) 성심(誠心)은 연풍(年豐)을 원  
 (願)호노라

<제1수, 원풍(願豐)>

농인(農人)이 와 이로디 봄 왓니 바티 가새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짜보 내니  
 두어라 내 집 부디 흐라 늬 하니 더욱 도타

<제2수, 춘(春)>

여름날 더운 적의 단 짜히 부리로다  
 밧고랑 미자 하니 썸 흘너 짜희 듯네  
 어스와 님립신고(粒粒辛苦) 어니 분이 알으실고

<제3수, 하(夏)>

그을희 곡석 보니 뎡흙도 뎡흙세고  
 내 힘의 님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  
 이 밧기 천사만중(千駟萬鍾)을 부러 무슴 흐리오

<제4수, 추(秋)>

밤의란 스출 쏘고 나죄란 썬를 부여  
 초가(草家)집 자바 미고 농기(農器)점 츠려스라  
 내년(來年)희 봄 온다 흐거든 결의 종사(從事) 흐리라

<제5수, 동(冬)>

새배 빗 나자나셔 백설(百雪)이 소리훈다  
 일거라 아히들아 밧 보러 가자스라  
 밤 스이 이슬 귀운에 언마나 기런느고 호노라

<제6수, 신(晨)>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랏 김을 하여  
 비골른 농부(農夫)들을 진시(趁時)에 머겨스라  
 아히야 혼 그릇 올너라 친(親)히 맛봐 보내리라

<제7수, 오(午)>

서산(西山)애 히 지고 풀 굿테 이슬 난다  
 호뎡을 둘너 메고 들 디여 가자스라  
 이 중(中)의 즐거운 썬을 님너 무슴 흐리오

<제8수, 석(夕)>

- 이휘일, 「저곡전가팔곡」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버디 몇치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의 들 오르니 괴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숫 밧기 또 더하야 머엇호리

<제1수>

구름빗치 조타 하니 검기를 즈로 한다  
 바람 소리 몹다 하니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뿐인가 호노라

<제2수>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하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호노라

<제3수>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님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 서리를 모르는다  
 구천(九泉)의 불회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제4수>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뛰연는다  
 더러코 스시(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호노라

<제5수>

자근 거시 노피 떠서 만물(萬物)을 다 비취니  
 밤둥의 광명(光明)이 너만하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벌인가 호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 -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전(奎) 저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

(나)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다)

월하노인을 통하여 저승에 하소연해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 되어,  
 나는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살아서,  
 그대에게 이 슬픔 알게 했으면.

- 김정희, 「배소만처상」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향규(香閨)의 일이 없어 백화보(百花譜)를 펼쳐 보니  
 봉선화 이 이름을 뒤라서 지어내고  
 진유(眞遊)의 옥소(玉簫) 소리 자연(紫煙)으로 행한 후에  
 규중(閨中)의 남은 인연(因緣) 지화(枝花)의 머무르니  
 유약(柔弱)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 넘노는 듯  
 자약(自若)히 붉은 꽃은 자하군(紫霞裙)을 헤쳤는 듯  
 백옥(白玉)섬 좋은 흙에 종종이 심어 내니  
 춘삼월(春三月)이 지난 후에 향기(香氣) 없다 웃지 마소  
 취(醉)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가 저허하네  
 정정(貞靜)한 기상(氣像)을 여자 밖에 뒤 벗할고  
 옥난간(玉欄干)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紗窓)을 반개(半開)하고 차환(叉鬢)을 불러내어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상자(繡箱子)에 담아 놓고  
 여공(女工)을 그친 후의 중당(中堂)에 밤이 깊고  
 납촉(蠟燭)이 밝았을 때 차츰차츰 고초 안자  
 흰 구슬을 갈아 내어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爛  
 漫)이 개어 내어  
 파사국(波斯國) 저 제후(諸侯)의 홍산궁(紅珊宮)을 헤쳤는 듯  
 심궁(深宮) 풍류(風流) 절고에 홍수궁(紅守宮)을 마아는 듯  
 섬섬(纖纖)한 십지상(十指上)에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微微)히 스미는 양  
 佳人(佳人)의 아픈 뺨의 홍로(紅露)를 끼쳤는 듯  
 단단히 봉한 모양 춘나옥자일봉서(春羅玉字一封書)를 왕모  
 (王母)에게 부쳤는 듯  
 춘면(春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옥경대(玉鏡臺)를 대하여서 팔자미(八字眉)를 그리려니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듯  
 손으로 잡으려니 분분(紛紛)이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섞인 안개 가리웠다  
 여반(女伴)을 서로 불러 낭랑(朗朗)이 자랑하고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比較)하니  
 쪽잎의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 아니 옳은손가  
 은근이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綠衣紅裳) 일여자(一女子)가 표연(飄然)이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기는 듯 사례(謝禮)는 듯 하직(下直)는 듯  
 몽롱(朦朧)이 잠을 깨어 정녕(丁寧)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下直)한다  
 수호(繡戶)를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점검하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黯黯)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어 담아  
 꽃에게 말 부치대 그대는 한(恨)티 마소  
 세세(歲歲)년(年年)의 꽃빛은 의구(依舊)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원(東園)의 도리화(桃李花)는 편시춘(片時春)을 자랑 마소  
 이십번(二十番) 꽃바람에 적막(寂寞)히 떨어진들 뒤라서  
 슬퍼할고  
 규중(閨中)에 남은 인연(因緣) 그대 한 몸뿐이로세

봉선화(鳳仙花) 이 이름을 뒤라서 지어내고 일로하야 지어  
 서라

- 작자 미상, 「봉선화가」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 불구 이내 잠아 검치 두덕 이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 너는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滋甚)하뇨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 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虛度)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불청(無常不請) 원망 소래 온 때마다 듣난고니  
 석반(夕飯)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  
 낮에 못 한 남은 일을 밤에 할라 마음먹고  
 언하당(言下當) 황혼이라 섬섬옥수(纖纖玉手)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드문드문 질긋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알로 솟아 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수 피우든고  
 맑고 맑은 이내 눈이 절로 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리고 졸(拙)흔 몸애 임금 총애가 지극하니  
 힘을 다한 나랏일을 죽어야 말녀 너겨,  
 숙야비해(夙夜匪懈)\*햐 밤을 낮고 생각흔들  
 관솔의 현 불로 일월명(日月明)을 도울는가  
 시위반식(尸位伴食)\*을 몇 히나 지내연고  
 늘고 병(病)이 드러 해골(骸骨)을 빌리실시\*  
 한수(漢水) 동(東) 짜흐로 물을 찾고 산을 찾아  
 용진강(龍津江) 거슬러 올라 사제(莎堤)\* 안 도라드니  
 제일강산(第一江山)이 임지 업시 브려는다  
 평생몽상(平生夢想)이 오라햐야 그러턴지  
 수광산색(水光山色)이 넷 늦출 다시 본 듯  
 무정(無情)흔 산수(山水)도 유정(有情)햐 보이는다  
 백사정반(白沙汀畔)의 낙하(落霞)을 빗기 띄고  
 삼삼오오(三三五五)히 셋거 노는 더 백구(白鷗)야  
 너드려 말 못자 놀너디 마라스라  
 이 명구승지(名區勝地)을 어더라 드러쨌다  
 벽파(碧波)\* | 양양(洋洋)하니 위수(渭水)\* 이천(伊川)\* 아닌  
 게오  
 층만(層巒)\*이 울울(兀兀)하니 부춘(富春) 기산(箕山)\* 아닌  
 게오  
 임심(林深) 로흑(路黑)하니 회옹(晦翁) 운곡(雲谷)\* 아닌게오  
 천감(泉甘) 토비(土肥)하니 이원(李愿) 반곡(盤谷)\* 아닌게오  
 배회사억(徘徊思憶)\*호디 아모 던 줄 내몰내라  
 애지청란(岸芝汀蘭)은 청향(清香)이 옥옥(郁郁)햐 원근  
 (遠近)에 이어 잇고  
 남간동계(南澗東溪)에 낙화(落花) | 그득 즘겨거늘  
 형극(荊棘)을 헤혀 드러 초옥수간(草屋數間) 지어 두고  
 학발(鶴髮)\*을 피시고 종효(終孝)를 흐려 너겨  
 원거원처(爰居爰處)하니 차강산지(此江山之) 임재로다  
 삼공불환 차강산(三公不換此江山)\*을 오늘스 아라고야  
 어즈러운 구로(鷗鷺)와 수(數)업슨 미록(麋鹿)\*을  
 내 혼자 거느려 가축으로 삼아거든  
 갑업슨 청풍명월(淸風明月)은 절노 내 것 되야지니  
 늡과 다른 부귀(富貴)는 이 흔 몸애 그자꼬야  
 이 부귀(富貴) 가지고 저 부귀(富貴) 부러울 소냐  
 부러운 줄 모르거든 사귈 줄 알리넌가  
 홍진(紅塵)도 머러가니 세사(世事)을 듯볼소냐  
 화개엽락(花開葉落)\* 아니면 어니 절(節)을 알리런고  
 중은암(中隱菴) 쇠뿔 소리 곡풍(谷風)의 셋거 느라  
 매창(梅窓)의 이르거든  
 낮잠을 꺷찌야 병목(病目)을 여러 보니  
 밤비에 꺷 핀 가지 암향(暗香)을 보내여  
 봄철을 알외는다

- 박인로, 「사제곡」 -

- \* 숙야비해: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음.
- \* 시위반식: 하는 일 없이 벼슬자리를 지키며 녹(祿)만 타 먹음.
- \* 해골을 빌리실시: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상황에서 임금에게 주청할 때 사용하는 말.
- \* 사제: 경기도 용진(龍津)에 위치한 곳으로 이덕형이 은거하였음.

- \* 벽파: 푸른 물결.
- \* 위수: 강태공이 낚시를 했던 강.
- \* 이천: 유학자인 정이가 살던 곳을 의미함.
- \* 층만: 높은 산봉우리.
- \* 기산: 소부와 허유가 벼슬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숨어 살던 산.
- \* 회옹 운곡: 주자학의 시조인 주희가 살던 곳.
- \* 이원 반곡: 당나라 때 이원이라는 인물이 은거하던 공간.
- \* 배회사억: 거닐면서 생각함.
- \* 학발: 학의 깃털처럼 하얗게 센 머리털. 여기서는 늙은 부모를 의미함.
- \* 삼공불환 차강산: 삼정승과 같은 높은 벼슬을 준다 해도 이 강산과는 바꾸지 아니함.
- \* 미록: 고라니와 사슴.
- \* 화개엽락: 계절 변화에 따라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짐.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복(春服)을 처엄 입고 려경(麗景)\*이 더된 저귀  
청려장(靑藜杖) 빗기 쥐고 동자(童子)를 육칠(六七) 불너내야  
속넙 난 잔피에 죽용중(足容重)케\* 훗거러  
청강(淸江)의 발을 씻고 풍호강반(風乎江畔)하야  
흥(興)을 타고 도라오니 무우영이귀(舞雩詠而歸)\*를 저그나  
부를소나

춘흥(春興)이 이러커든 추흥(秋興)이라 저글넉가  
금풍(金風)\*이 슬슬하야 정반(庭畔)에 지니 부니  
머피입 지는 소리 먹은 귀를 놀리느다  
정치추풍(正值秋風)을 중심(中心)에 더욱 반겨  
낙더을 둘러메고 홍료(紅蓼)을 헤쳐 드러  
소정(小艇)을 글러 노화 풍범낭즙(風帆浪楫)\*으로 가는 디로  
더더 두니

유하전탄(流下前灘)하야 천수변(淺水邊)에 오도고야  
석양(夕陽)이 거윈 적의 강풍(江風)이 짐즉 부러 귀범(歸  
帆)을 보니는 듯

아득든 전산(前山)도 흘(忽) 후산(後山)의 보이느다  
수유(須臾) 우화(羽化)하야\* 연엽주(蓮葉舟)에 올라는 듯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 내 흥(興)에 엇지 더며  
장한(張翰) 강동거(江東去)\*인들 오늘 경(景)에 미출넉가  
거수(居水)\*에 이러커든 거산(居山)\*이라 우연(偶然)하랴\*  
산방(山房)의 추만(秋晚)커늘 유희(幽懷)\*를 들 디 업서  
운길산(雲吉山) 돌길히 막디 잡고 쉬여 올라  
임의소요(任意逍遙)\*하며 원학(猿鶴)\*을 벗을 삼아  
교송(喬松)을 비기여 사우(四隅)\*로 도라 보니  
천공(天工)이 공교(工巧)하야 빛빛출 쉼이논가  
흰 구름 말근 너는 편편(片片)이 썩여 나라  
노푸락 나지락 봉봉(峰峰) 곡곡(谷谷)이 면면(面面)에  
버렷썩든

서리친 신남기\* 봄 싯도곤 불거시니  
금수병풍(錦繡屏風)을 첩첩(疊疊)이 둘러는 듯  
천태만상(千態萬象)이 참람(僭濫)\*하야 보이느다  
힘 세이 다토면 내 분에 올라마는  
금(禁)하리 업술시 나도 두고 즐기노라  
호물며 남산(南山) 느린 굿희 오곡(五穀)을 가초 심거  
먹고 못 남아도 굿지나 아니 하면  
내 집의 내 밤이 그 맛시 엇도호노  
채산(採山) 조수(釣水)하니 수륙품(水陸品)도 잠깐 굿다  
감지봉양(甘旨奉養)\*을 족(足)다사 흘가마는  
오조함정(烏鳥含情)\*을 뱀고야 말렷노라  
사정(私情)이 이러하야 아직 물러나와신들  
망극(罔極)하 성은(聖恩)을 어니 각(刻)에 이질넉고  
견마미성(犬馬微聲)\*은 백수(白首)에야 더욱 김다  
시시(時時)로 머리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니  
늬 모르는 눈물이 두 사미에 다 져느다  
이 눈물 보건던 참아 물너날까마는  
긷득하 부재(不才)에 병(病)하나 디터 가고  
흰당(萱堂) 노친(老親)은 팔순(八旬)이 거의거든

탕약(湯藥)을 그치며 정성(定省)을 뷔울넉가  
이지야 어니 스에 이 산(山) 밧기 날오소나  
허유(許由)의 시슨 귀에 노래자(老萊子)\*의 오솔 입고  
압피에 저 술이 풀은 쇠 되도록  
학발(鶴髮)\*을 피시고 백발(白髮)에 아핀 줄 몰오도록  
함기 피셔 늘그리라

- 박인로, 「사제곡」 -

- \* 려경: 봄날.
- \* 죽용중케: 여유희게.
- \* 무우영이귀: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증점이 답한 구절.
- \* 금풍: 가을바람.
- \* 풍범낭즙: 바람으로 돛을 삼고 물결로 노를 삼음.
- \* 수유 우화하야: 잠깐 동안 신선 되어.
- \* 적벽유: 중국 시인 소동파의 작품. 자연에서의 감흥을 노래함.
- \* 장한 강동거: 중국 진나라 때 장한이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의 음식이 생각나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고사.
- \* 거수: 물가에서의 삶.
- \* 거산: 산속에서의 삶.
- \* 우연하랴: 다름썩냐.
- \* 유희: 회포.
- \* 임의소요: 마음대로 거닐며 바람을 쏘임.
- \* 원학: 원숭이와 두루미.
- \* 사우: 사방.
- \* 신남기: 단풍나무.
- \* 참람: 제 분수를 넘어 방자스러움.
- \* 감지봉양: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받드는 일
- \* 오조함정: 까마귀가 먹은 마음.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 \* 견마미성: 개와 말이 충성스레 사람을 섬기듯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자 하는 정성.
- \* 노래자: 중국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현인. 70세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면서 부모를 즐겁게 함.
- \* 학발: 학의 깃털처럼 하얗게 센 머리털. 여기서는 늙은 부모를 의미함.